

보도자료

2012년 7월 12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김정렬 과장 (☎750-2730)
인터넷정책과 김도환 사무관 (☎750-2742) hwan@kcc.go.kr

방통위, 차세대 웹 표준 HTML5로 웹 환경 개선 · 인터넷 산업 경쟁력 모두 잡는다

- Active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표준화 추진 -
-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5년간 3,000명 육성 -
- 200개 공공 · 민간 웹 사이트 HTML5으로 전환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일, 우리나라의 웹 환경 개선과 인터넷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HTML5는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표준 기술인 ActiveX를 현격하게 줄이는 것은 물론, 구글·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OS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를 개방화시켜 플랫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콘텐츠·서비스 S/W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① 웹 기반의 공인인증서 표준화 추진, ② 5년간 HTML5 전문인력 3,000명 양성, ③ 공공·민간 웹 사이트의 HTML5 전환 지원 등 총 15개의 정책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추진과제로 ▲ 웹 기반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금까지 비표준 기술인 ActiveX를 이용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로 ‘공인인증서’를 직접 불러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웹 기반 전자서명 기능”과 “인증서 관리 기술”에 대한 개발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웹 기반 전자서명 기능”은 이미 금년초 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서 관리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방통위가 민간 전문가 및 ETRI 등을 통해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까지 표준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표준화에 성공할 경우, 금융위, 행안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5년간 HTML5 전문인력 3,000명 양성한다. HTML5는 국내업체가 글로벌 플랫폼 업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업체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HTML5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재교육 인력 및 신규 인력이 3만명 이상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수준별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5년간 3,000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기존 웹 개발인력의 재교육을 위해서 전문 강좌를 개설하되, 실무 기술 중심으로 단기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1500명을 양성한다. 한편, 석·박사급 고급인력은 3~5개의 특화 대학을 선정,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250명을 육성한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HTML5 커뮤니티 및 동아리”도 지원(매년 10개, 1천만원)할 방침이다.

취업희망자 교육은 대학, 특성화고 등 취업 예정자와 미취업 청년층에게 기업 현장과 직결된 HTML5 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250명씩 총 1,250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취업 인턴제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후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특성화고 등의 교사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200대 공공·민간 웹 사이트의 HTML5 전환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웹 사이트에 대한 HTML5 적용(국내 11.7%, 해외 44%)이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파급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와 기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사이트 200개에 대해 3년에 걸쳐 HTML5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국내 웹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 외 개발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HTML5 관련 **표준문서 20종을 연차적으로 한글화**하여 보급한다. 웹 표준문서 한글화는 웹 개발자 대상 전문성 설문조사결과(‘12. 4월, KISA), 정부지원이 필요(35.9%)한 항목으로 나왔다.

HTML5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촉진 및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HTML5 Investment Fair”**를 **정례화**하고, 중소 벤처 ICT 기업에게 기술정보 및 동향, 장비 컨설팅 등을 제공해 주는 **“HTML5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차세대 웹 표준 HTML5 확산을 통해 국내 웹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상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고, 구글·애플이 장악중인 OS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줄여, 넓어지고 개방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서비스 S/W 기업이 맘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version5)는 차세대 웹문서 표준으로서 텍스트 및 하이퍼 링크만 표시하던 기존의 HTML에 오디오·비디오 및 그래픽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까지 웹 자체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다. HTML5는 ActiveX 등과 같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으며, OS·플랫폼·기기에 상관없이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최종 표준화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표준 제정 등을 위해 1994년 설립)에서 2014년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끝.